

사적연금과 지급보증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Waseda University
이 홍 무

2022년8월24일
FP학회/보험연구원 공동세미나



목 차

- 1. 문제의 제기
- 2. 고령화와 사적연금의 필요성
- 3. 사적연금제도
- 4. 기업연금과 지급보증
- 5. 개인연금과 지급보증
- 6.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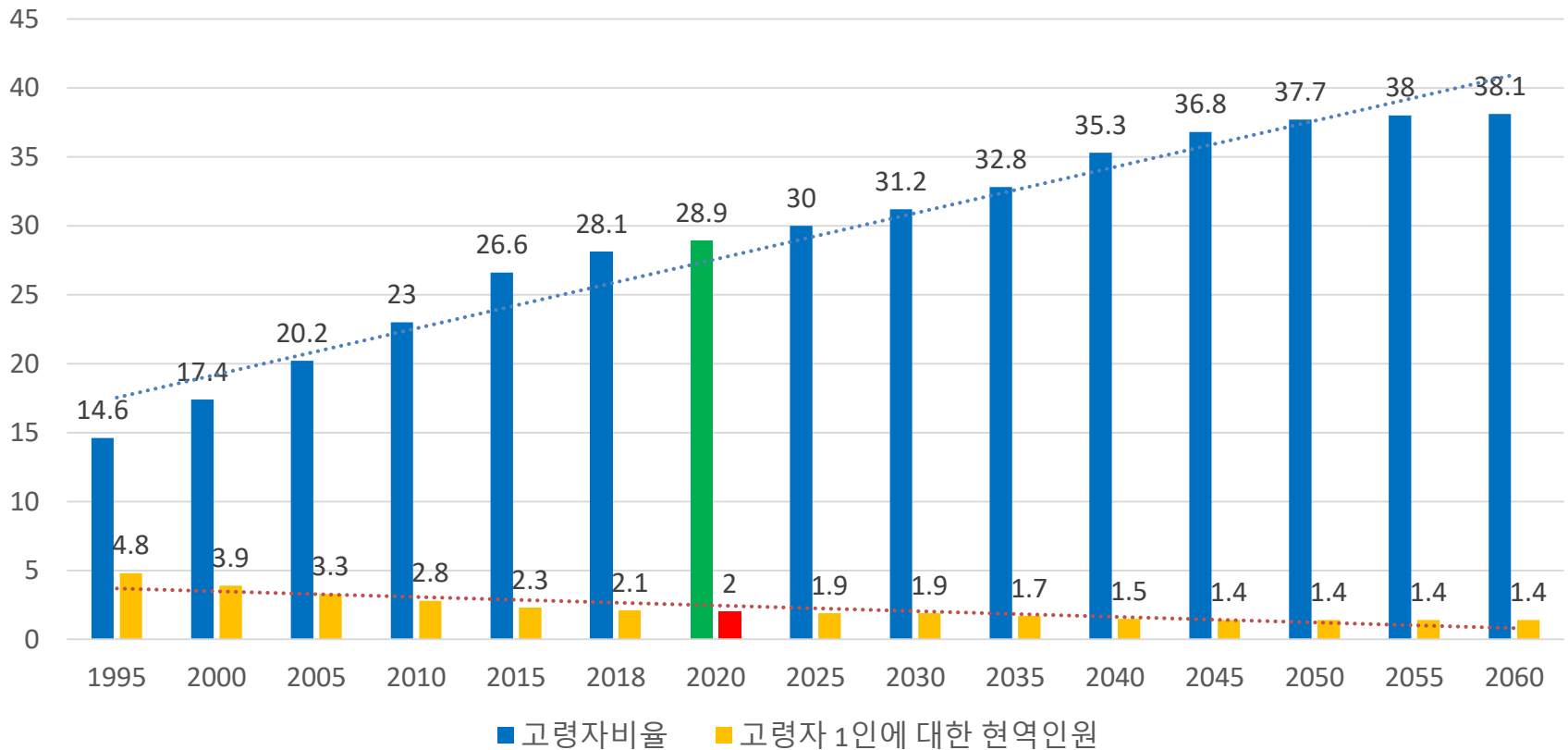
1.문제의 제기

사적연금과 지급보증

- 은퇴 후에 사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기업의 수명
 - 30년설(1983년 닛케이비즈니스)
 - 2021년 도산한 기업의 평균수명은 23.8년(동경상공리서치)
 - 제조업36.3년,금융보험과 정보통신15.7년
- 기업연금
 - 기업의 도산 또는 경영곤란
 - 보험회사나 은행의 도산 또는 경영곤란(간접영향)
- 개인연금
 - 보험회사나 은행의 도산 또는 경영곤란
 - 변액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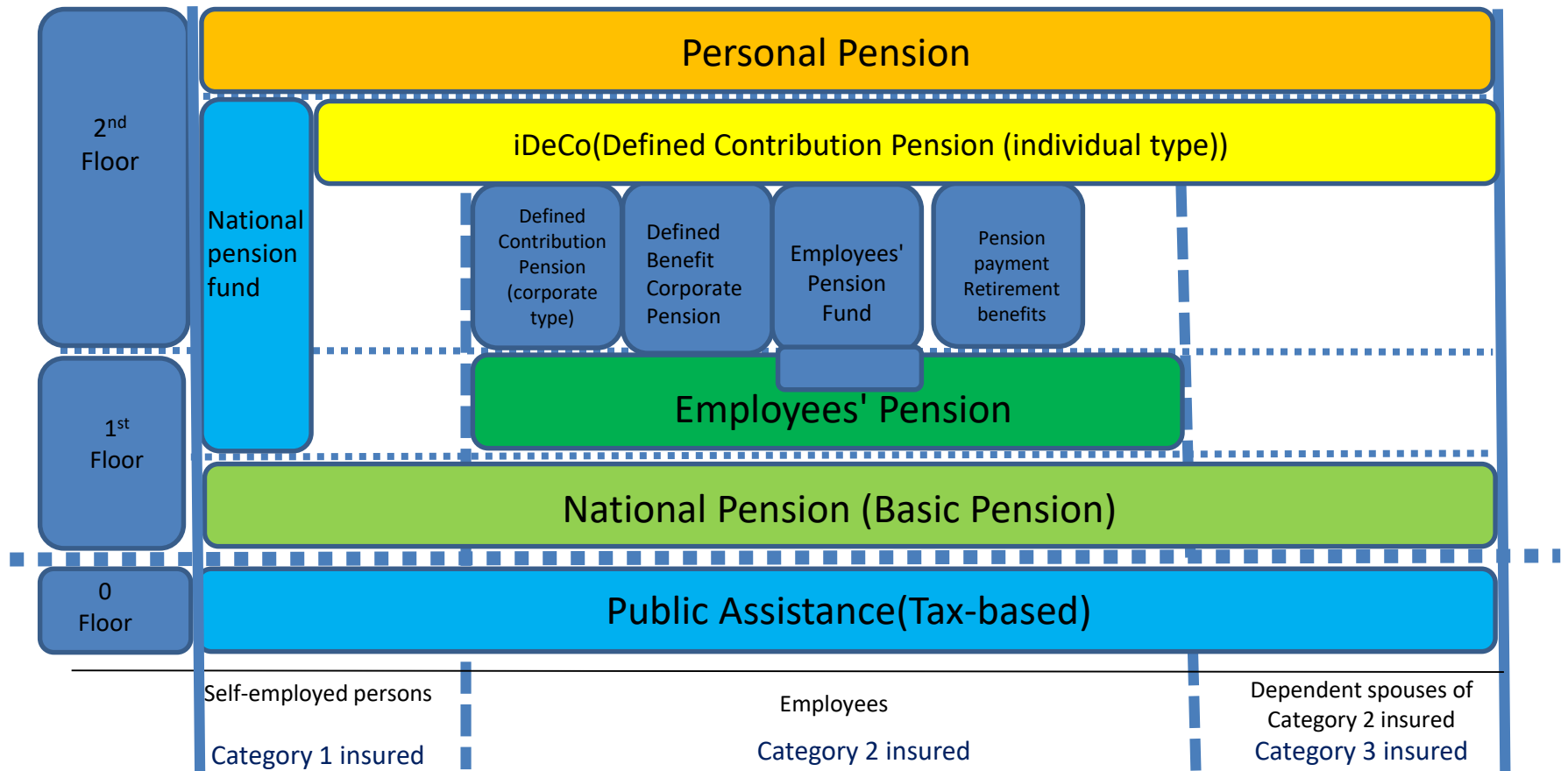
2.고령화와 사적연금의 필요성

고령화추세(%,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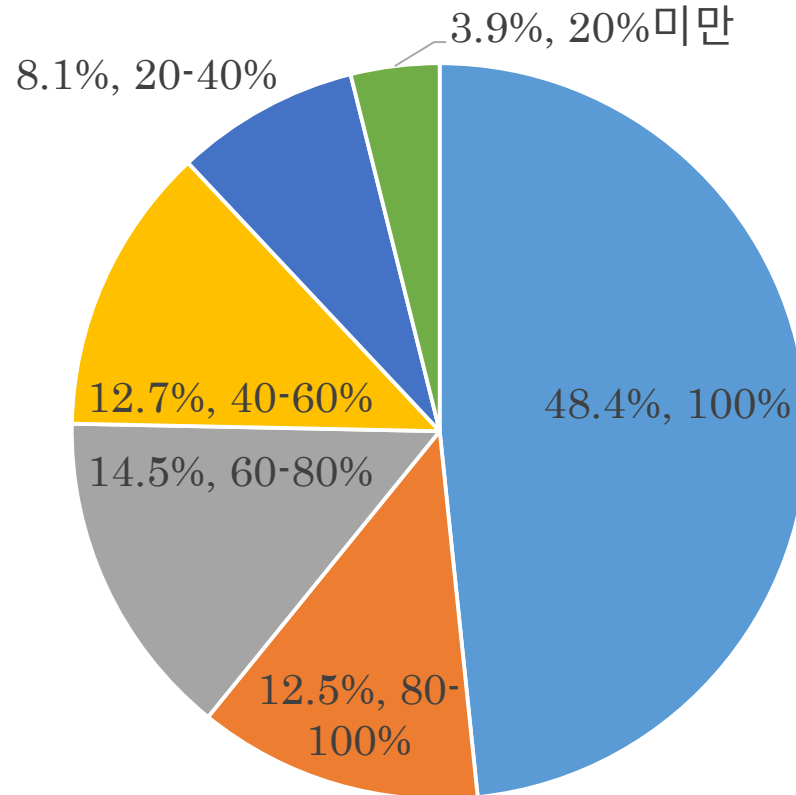


Source: Annual Report on the Aging Society FY 2019, June 2019 Cabinet Office of Japan

일본의 연금제도



공적연금,은급의 총소득에 차지하는 비율별 세대수의 구성비(2019년조사)



2019년 국민생활기초조사(일본후생노동성)

노후보장에 대한 사적 준비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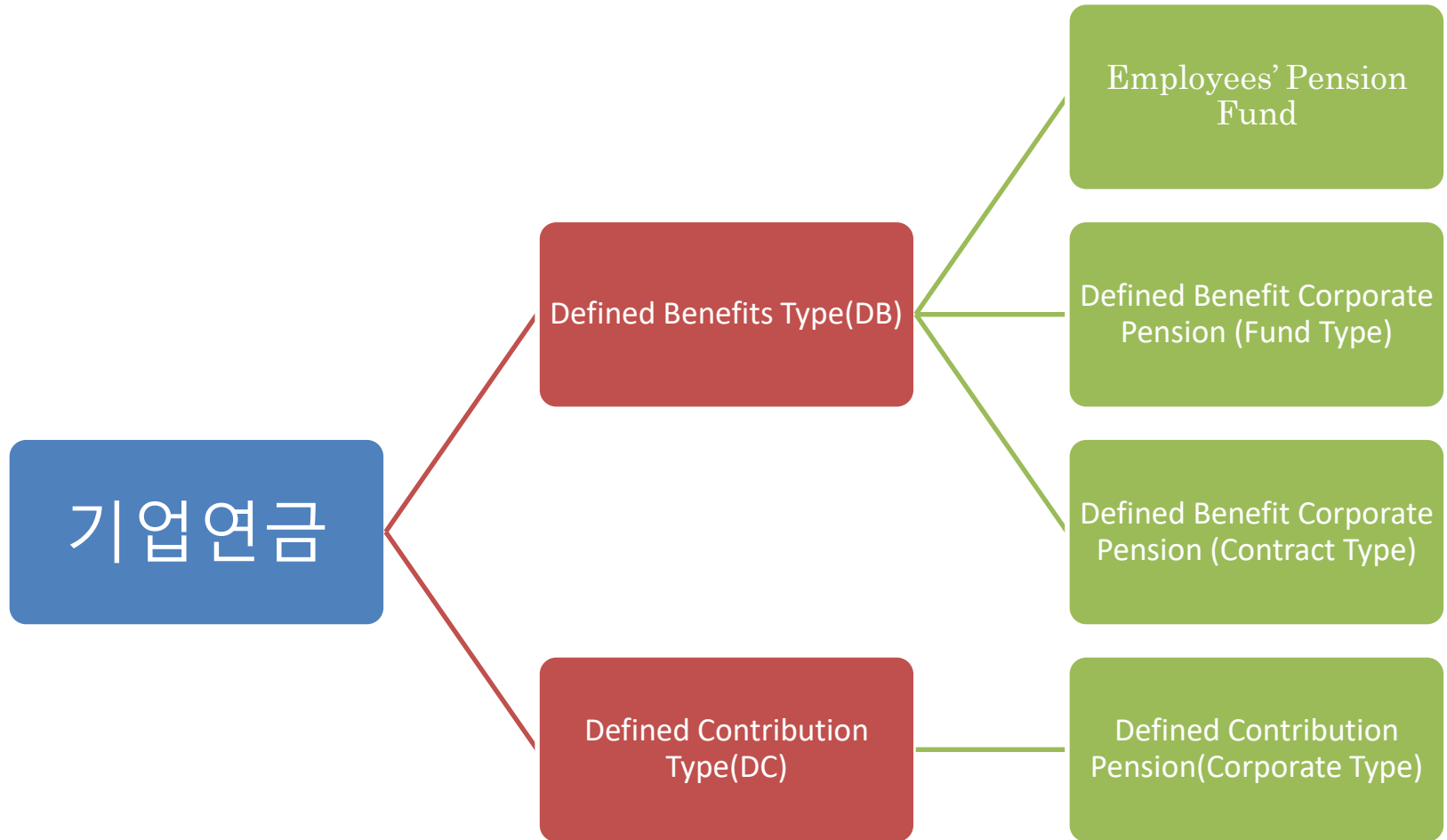
건수 : 4,014 (복수회답, 단위 : %)

구분		연령별					
		18~19세	20세대	30세대	40세대	50세대	60세대
준비하고 있다		8.5	48.5	63.9	67.3	72.6	71.5
(1)	개인연금 보험· 변액개인 연금보험 생명보험	4.9	29.6	45.4	47.4	51.7	44.8
(2)	손보의 연금형상 품	1.2	5.5	8.5	8.2	11.4	9.0
(3)	저축	4.9	31.1	40.2	40.3	50.0	53.9
(4)	유사증권	0.0	3.0	5.7	5.8	9.7	8.6
(5)	기타	0.0	0.5	0.1	1.1	0.8	1.3
준비하고 있지 않다		68.3	42.8	33.6	30.8	26.4	26.9
모른다		23.2	8.7	2.5	1.9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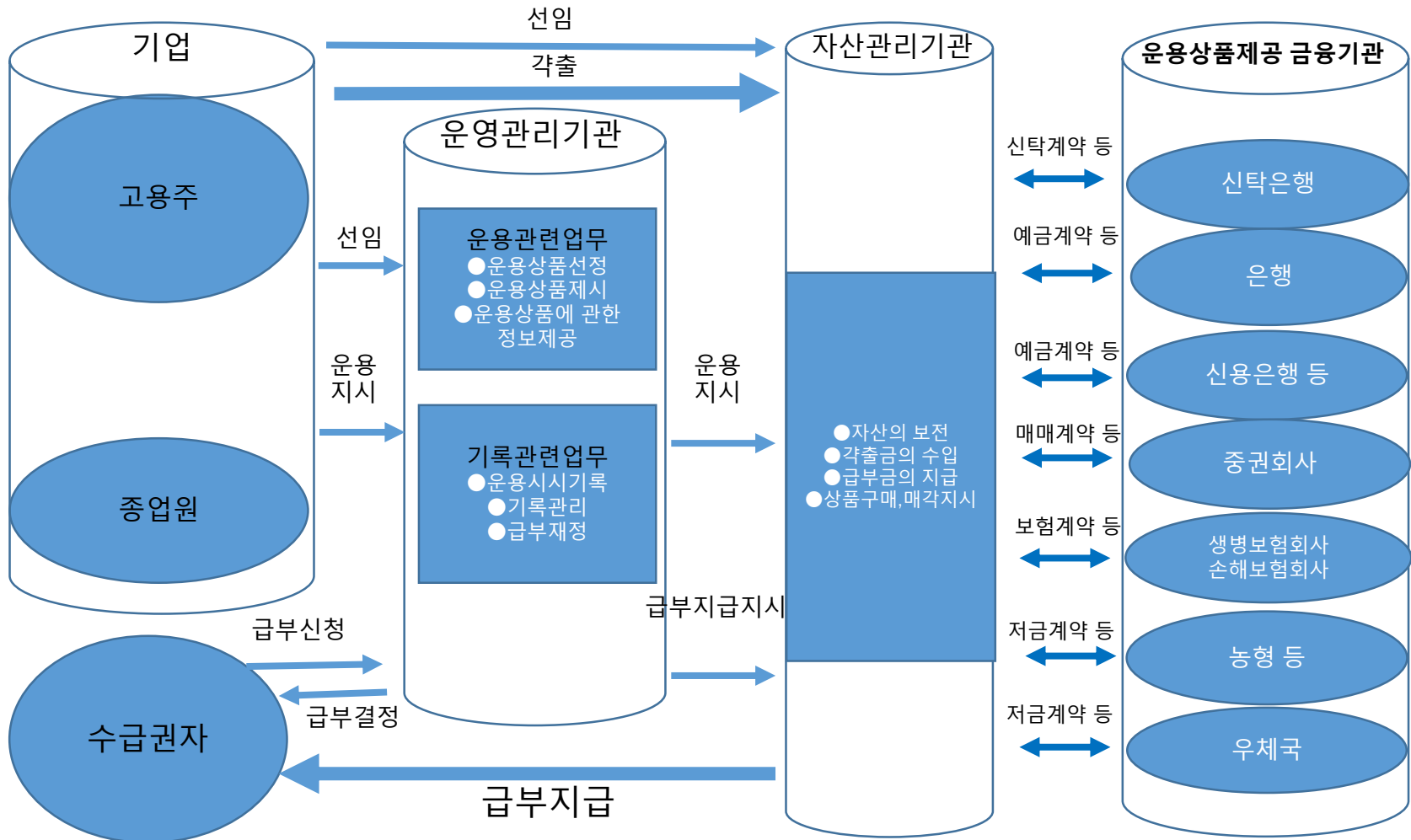
資料 : (公財) 생명보험文化센터「2019年度 生活保障に関する調査」をもとに作成

3. 사적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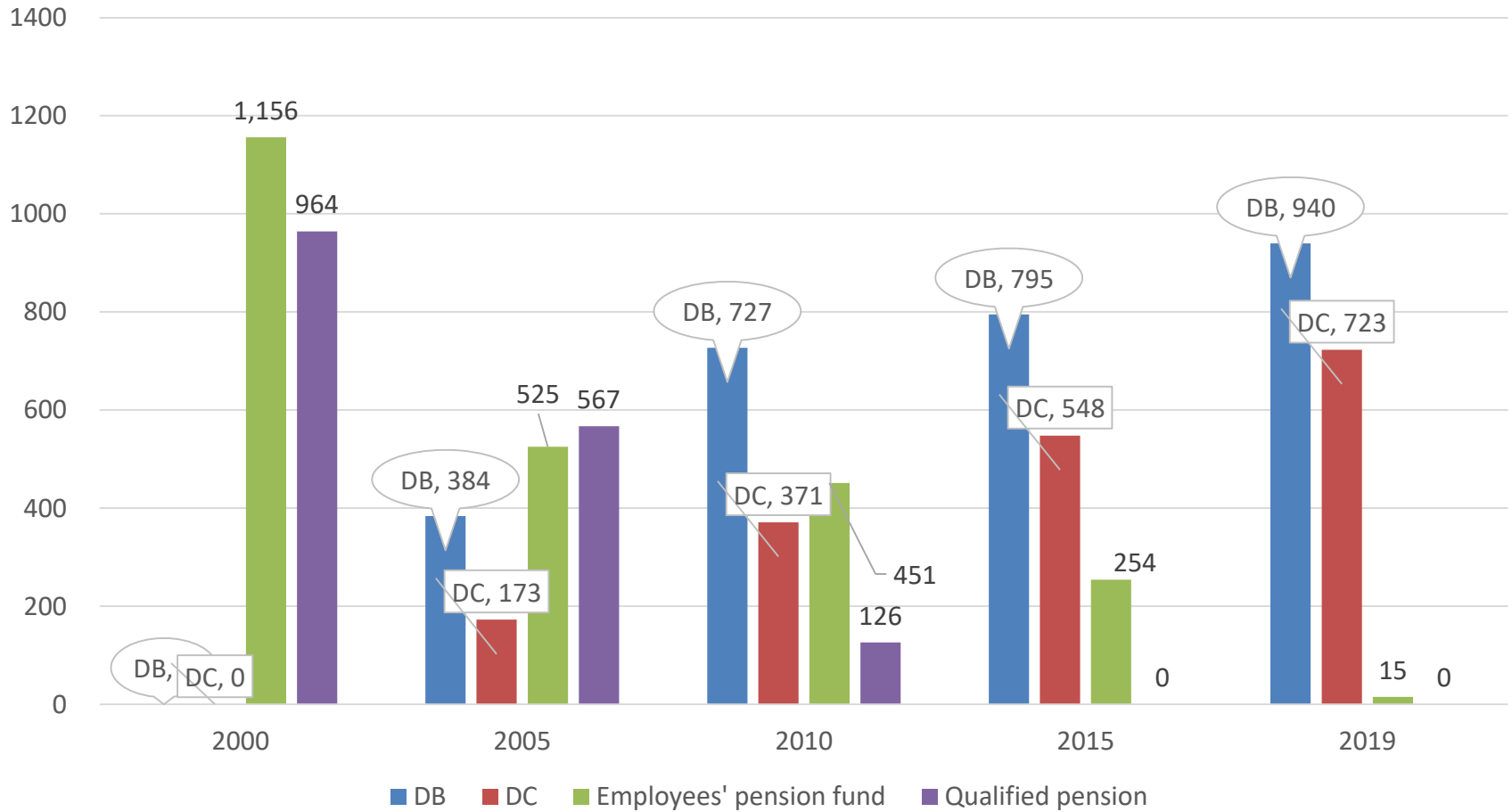
기업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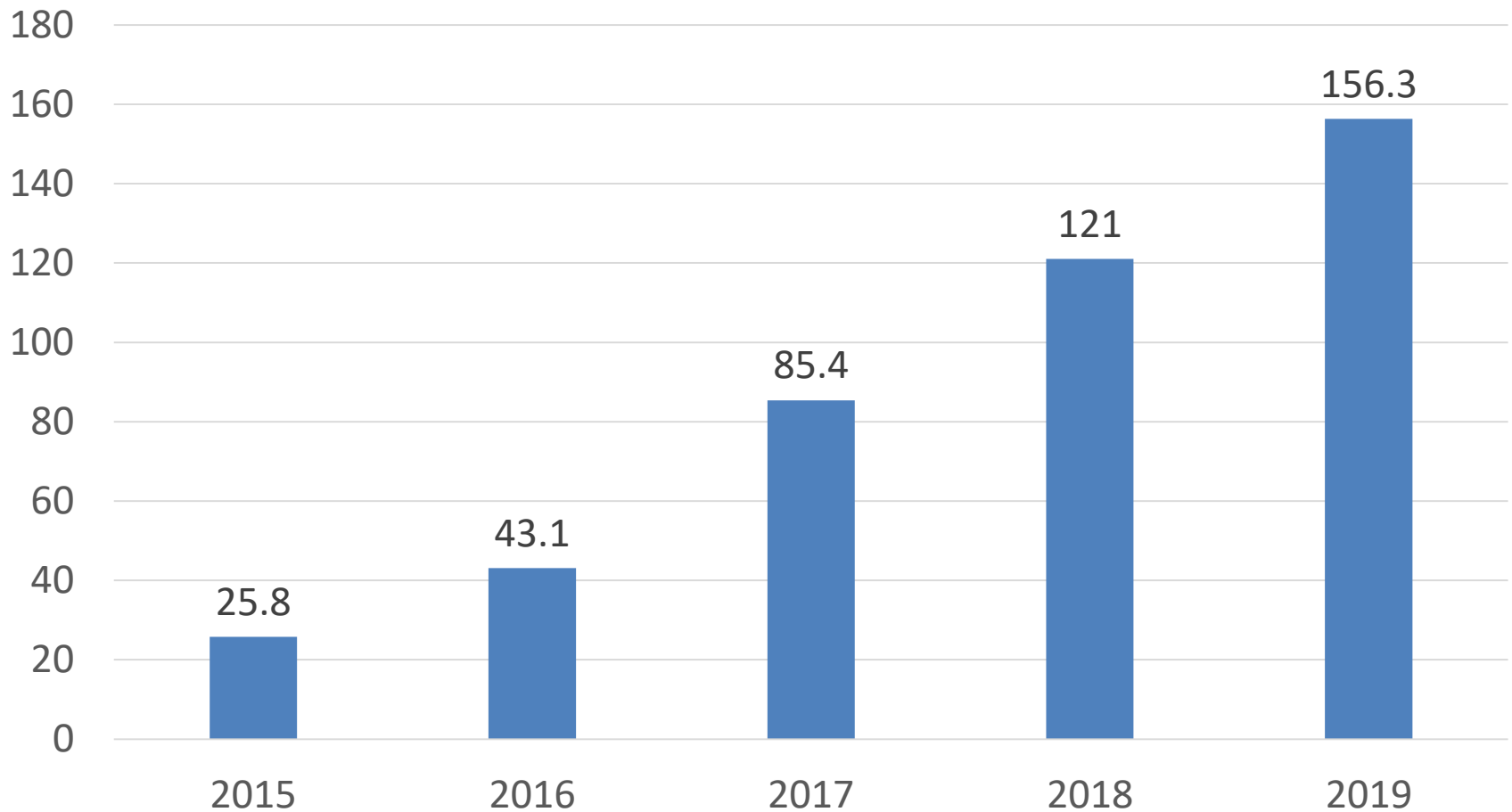
DC(기업형)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가입인원의 변화(단위: 10,000 명)



iDCO가입인원 (10,000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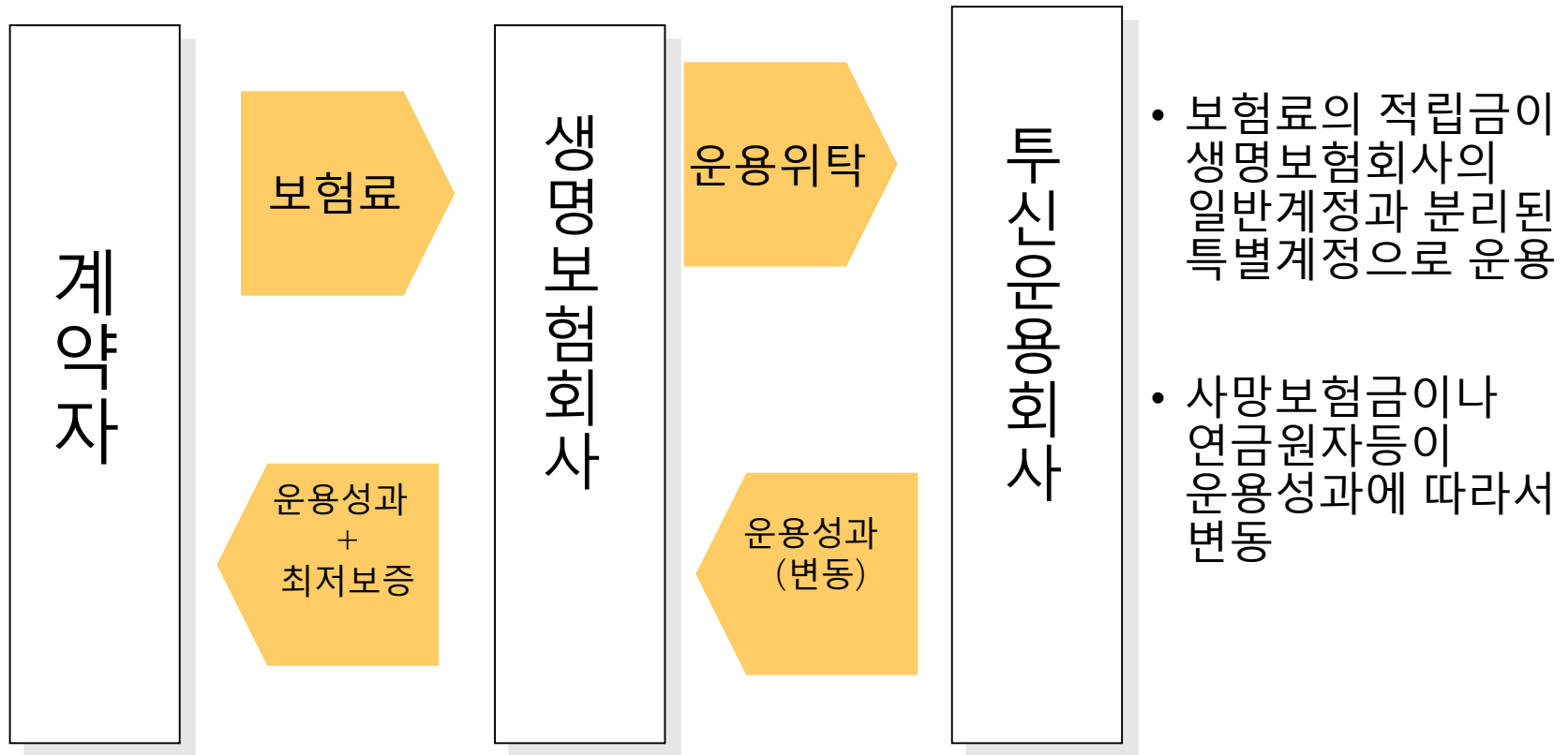
DB에서 DC로

- 일본의 DC(2001년)는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논의
 - 리스크분담형기업연금(2017년도입된 제3의 기업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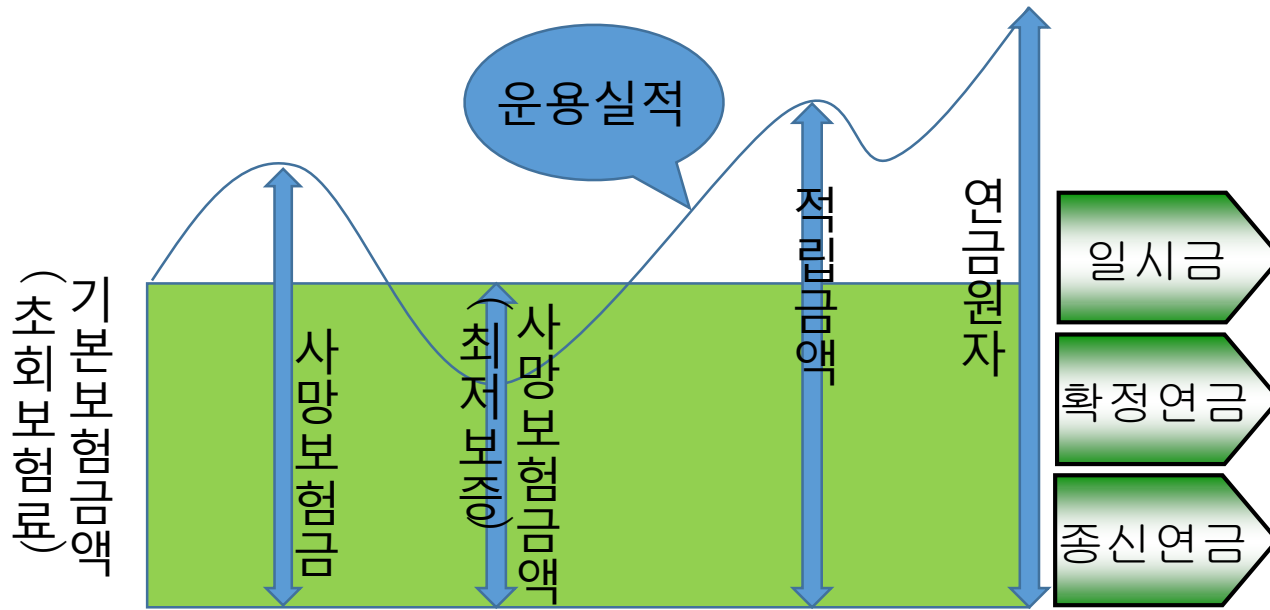
구 분	DB	DC
자산형성 리스크	고용주 기업	가입자
<u>초과이익의 귀속</u>	<u>고용주 기업</u>	<u>가입자</u>

- DB
 - 이익과 손실이 고용주기업에 귀속
 - 모랄리스크(투기적운용) 방지 필요
 - 지급보증(적립의무강화)의 필요성
 - 기업경영곤란시 임금인상요구가 있을 경우 임금대신 연금액인상

변액연금의 자금흐름



변액연금(일시납입)의 구조



- 보험금이나 연금원자에 최저보증이 설정
- 투자형연금이라는 명칭으로 판매
- 인플레이션 대응

4. 기업연금과 지급보증

기업연금의 지급보증제도

- 지급보증(DB)
 - 기업의 도산 등으로 기업연금제도가 폐지 또는 지급불능이 된 경우, 일정범위에서 연금의 지급을 보증
 - 미국의 「제도종료보험」, 영국의 「연금보증기금」, 캐나다 퀘벡주의 「연금급부보증」이 있다.
- 일본에서는 기업연금연합회가 후생연금기금을 대상으로 「지급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2013년의 후생연금기금의 개정에 관한 법개정시에 폐지됨.

미국 연금급부 보증공사

-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 1963년의 Studebaker의 공장폐쇄 시의 적립부족으로 인한 규제논의
 - 가입자나 행정에 대한 정보공개, 가입자격과 수급권부여, 최저적립기준, 수탁자책임, 제도종료보험
- 연금급부 보증공사(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 PGBC)
 - 적립부족의 상태로 고용기업 도산시의 공적보증제도
 - 재원은 고용주로부터 가입자단위로 징수하는 보험료
 - 고용주 리스크를 DB제공자 전체로 공유하는 제도
- 고용주의 모랄리스크
 - Credit에 의한 각출억제
 - 파탄직전의 급부증액
 - 고율의 예정이율 적용
- 2006년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
 - 최저적립기준의 강화(비계속기준에 가까운 기준)
 - 적립부족 각출의무의 강화
 - 적립부족에 따른 급부제한(급여인상대신 연금급부 인상을 방지)

DB의 급부삭감, 몰수

- 일본의 경우 경영곤란시 노동조합이나 수급자의 가입자의 동의를 전제로 급부삭감 가능
 - 확정급부기업연금법시행규칙제6조
- 기업의 명예훼손 등의 경우는 몰수 가능(수급권부여)
 - 취업규칙

5. 개인연금과 지급보증

파산시 소비자 보호: 은행

- 예금보험 대상 금융기관
 - 일본 국내에 본점이 있는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노동금고, 신용금고중앙금고, 전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 노동금고연합회, 상공조합중앙금고이며 법률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
 - 단, 이러한 금융기관에서도 해외지점과 외국은행의 일본지점도 대상에서 제외, 일본국내에 본점이 있는 금융기관이라면 외국금융기관 자회사(외국금융기관의 일본법인)라도 대상
- 보호범위

구분		예금 등의 분류	보호범위
예금보험제도의 대상예금 등	결제용 대금	당좌예금, 이자가 붙지 않는 보통예금 등	전액보호
	일반예금 등	이자가 붙은 보통예금, 이자가 붙지 않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원금보전계약이 있는 금전신탁 등	금융기관마다 예금자 1명당 원금 1,000만엔까지와 파산일까지의 이자 등을 보호
예금보험제도의 대상 외 예금 등	외화예금, 양도성예금, 무기명예금, 가공명의로의 예금, 타인 명의의 예금(차명예금), 금융채(모집적 및 보호예치계약이 종료된 것)		보호대상 외

파산시 소비자 보호: 보험

- 파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구제보험회사에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제도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에 1996년부터 도입
- 이 제도에 대해서는 구제 보험 회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능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
- 이에 따라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써 1998년 6월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와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1998년 12월 1일에 각각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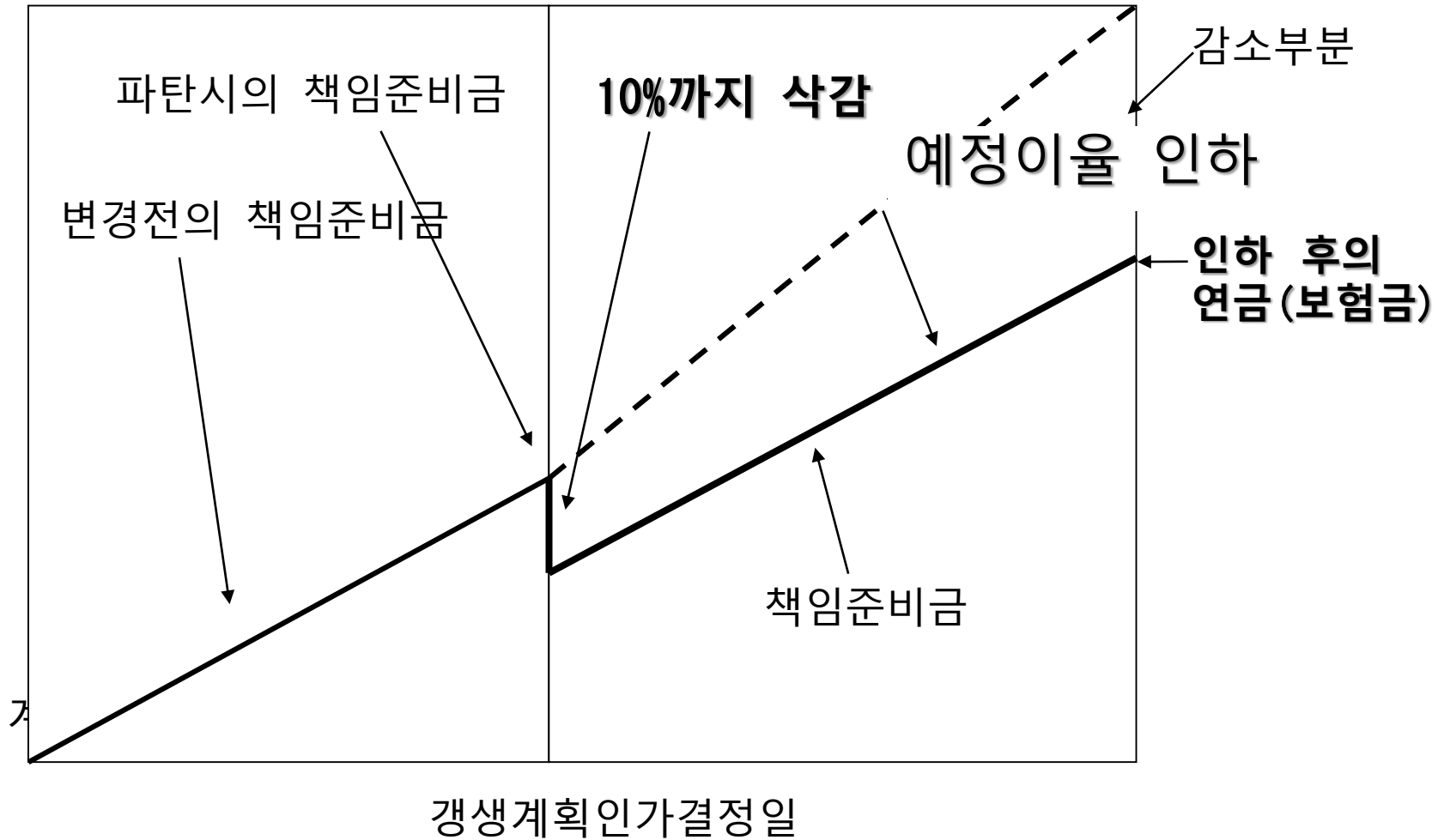
보상대상과 금액(보험)

- 보험계약의 보상대상계약
 - 특별계정(변액보험)을 제외한 원수보험계약으로 고예정이율계약을 제외
- 보상비율은 파탄시점의 책임준비금의 90%
- 고예정이율계약의 보상율 = $90\% - \{ (\text{과거5년간의 각년도의 예정이율} - \text{기준이율}) \text{의 합계} \div 2 \}$
 - 고예정이율계약
 - 파탄시점의 과거5년간에 항상 예정이율이 기준이율을 초과한 계약
 - 기준이율
 - 생명보험(손해보험) 전사의 과거 5년간 평균수익율을 기준으로 금융청장관 및 재무대신이 정함.
 - 현재는 3%

파산시 소비자 보호: 증권

-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해 설립되어 있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일본 투자자 보호기금이 있음
- 일본에서 영업하는 모든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
-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재산과 증권회사 자신의 재산을 분별관리할 의무를 지지만, 증권회사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
-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 상품: 예치금, 유가증권(주식, 투자신탁, MRF, 상장투자신탁, 외국주식 등), 신용거래의 증거금, 옵션거래, 선물거래에서의 증거금
- * 신용거래, 옵션거래 등에 있어서의 미결제건의 평가이익 등은 보호의 대상 제외
- 증권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맡은 금전이나 주식, 채권, 투자신탁 등의 유가증권을 거래처의 증권회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자산과는 확실히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화(분별관리)
 - 분별관리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증권회사가 파산시 원칙으로서 이용자의 자산에는 영향이 없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반환할 수 있음
 - 만일 어떠한 사정으로 증권회사가 파산되어, 분별관리의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이용자의 자산을 원활히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일본 투자자보호기금은 이용자의 금전과 유가증권의 가치(시가)를 합계하여, 1인당 1,000만엔을 상한으로 보상

책임준비금과 예정이율의 인하



東邦生命의 보험금·연금액의 삭감율(%)(가입연령20세) (1999년6월 4 일파탄)

구 분	보험계약년도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일시납 양노보험	16	15	14	20	21	21	18	14
일시납종신보험	50	49	65	65	75	80	79	79
종신보험	31	32	46	47	57	62	62	63
정기부종신보험	18	18	20	21	25	23	24	24

6. 맺음말

은퇴 후에 사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기업연금
 - DB
 - 파탄시의 지불보증제도가 없음
 - 감액, 몰수 가능
 - DC
 - 구입상품에 따라 보증한도가 다름
- 개인연금
 - 변액연금
 - 보험금 일부 보증
 - 보험사파탄시 보증대상외
 - 일반계정의 연금
 - 책임준비금의 90%보증
 - 연금액은 예정이율 인하 후 재계산

References

- *Annual Report on the Ageing Society FY 2019*, June 2019 Cabinet Office of Japan.
- Hongmu Lee, "Insurance Bankruptcy and Policyholder Protection", *New Insurance Theory*, Seibundo, 2005.
- Id., "Changes in Resolution of Insurance Companies in Japan", *Life Insurance*, No. 317,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June 25, 2005.
- Id., "Variable Annuity Risk Management in Japan and Its Problems (1)", *Life Insurance*, No. 325,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March 5, 2006.
- Id., "Variable Annuity Risk Management in Japan and Its Problems (2)", *Life Insurance*, No. 327,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May 5, 2006.
- Id., "Protection of Beneficiary Rights in DBs and the Effectiveness", *The Waseda commercial review*, No.409.410, Waseda university, December 2006.
- 李洪茂、確定給付企業年金法におけるモラル・ハザードと受給権保護『保険学雑誌』第603号、日本保険学会、2008年12月31日、pp.87-106。
- 同上、日本における基金型企業年金「厚生年金基金」のモラルリスクと受給権消失『生命保険』第419号、韓国生命保険協会、2014年1月10日、pp.28-39。
- Hongmu Lee, *Personnel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Hakueisha, 2021.
- Id., *Insurance Theory*, Hakueisha, 2021.
- Id., *Risk Management*, Springer, 2021.
- Hongmu Lee, ed., Gianni Nicolini, ed., and Man Cho, e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ension Systems*, Springer, 2022.